



김성규 총무기획이사 부산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새봄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지난 2월 23일 우리회사 김성규 총무기획이사가 부산대학교 효원 캠퍼스에서 명예로운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김성규 이사는 인사, 조직에 관하여 전공을 하였으며 "경영혁신과 기업성공에 관한 네트워크 조직의 조절효과"에 관한 논문으로 이번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우리회사도 김성규 총무기획이사의 입사로 좀더 조직적이고 혁신적인 회사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 2월 21일에는 부산기계공고 졸업식이 열렸다. 우리회사에는 설계 3명을 포함하여 실습생 11명이 올해 졸업을 하게 되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부산기계공고 배관과 2회 졸업생으로 평소에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손수 지원해왔고 현재 부산기계공고 "학교운영위원장" 과 "산학협동자문위원장" 을 겸임하고 있다. 올해는 정기영 군에게 "학교운영위원장상" 을 조대현, 이한호 군에게는 "산학협동자문위원장상" 등 대외상을 수여했다.

올해 부산기계공고 졸업생은 총 496명이다. 이중 286명이 대학에 진학했고 148명이 취업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취업생은 총 49명 뿐인데 그 중 11명의 우

수한 학생이 선보공업에 취업하는 기쁨을 누렸다. 또한 우리회사는 현재 재직 중인 올해 졸업생 11명에게 '우수 실습생상' 을 수여했다.

매년 졸업을 축하하는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해 온 우리회사는 올해도 '점심특선' 을 졸업생과 그 가족, 친구들에게까지 대접해 졸업의 기쁨을 함께했다.



MBC 9시 뉴스 방영

우리회사는 지난 2월 28일 MBC 부산방송 9시 뉴스에 방영되었습니다.



9시 뉴스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령인구의 실업문제로 한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우리회사는 정년을 없애 직원들이 일 할 수 있을 때까지 고용을 보장하여 여기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을 발췌합니다. (MBC뉴스 조영익 기자)



부산 사하구의 한 조선 기자재 생산업체. 요란한 기계음을 내며 작업장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작업장 한편에서 설비 보온작업을 하고 있는 이는 바로 이상하 할아버지. 올해 나이가 74이지만 젊은이들과 비교해 기술은 물론 일에 대한 열정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철판을 절단하고 있는 66살 장수복 팀장은 이 회사 창립 멤버로 올해로 20년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장 할아버지는, 어느덧 성장한 두 아들과 직장 동료가 돼 함께 일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근로자는 모두 150명. 이 가운데 10%정도인 14명이 이미 정년을 한참 넘긴 노령 근로자들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믿음 속에 회사는 매년 3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올해 연 매출이 천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 인구의 실업문제로 몸살 앓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한 푸근한 설맞이



우리회사는 관내 어려운 이들에게 성금을 기탁해 호호한 정을 나눴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15일 우리회사는 다대1동 동사무소를 방문해 우리회사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관내 소년

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30만원씩 총 17곳에 510만원을 전달했다. 해마다 성금을 해온 우리회사는 막바지 겨울바람이 싸한 날씨속에 온정을 전해 우리회사 이웃들의 마음이 푸근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회사 2007년 생산정보화사업 지정업체로 선정

우리회사는 3월 8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07년 제1차 생산정보화사업 지원업체로 선정되었다. 전국에서 약100여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그 중 부산·울산지역 10개의 지원업체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업체는 전체 사업 소요자금 중 50% 까지 지원받게 된다.



우리회사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품질무검사인증 획득

선보공업(본사)과 선보 유니텍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자주검사인증(MQC: Maker Quality Control)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회사는 제품 품질 면에서 명실공히 믿음을 주는 기업임을 또 한번 드러냈다.

우리회사 경향신문사 '뉴스메이커' 지에 소개돼

'작지만 강한 회사' 로 기사화... 직원 애사심 한층 더 높여줄 듯 경향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뉴스메이커 714호(2007년 3월 6일판)에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조선기자재 전문회사인 우리회사가 '대기업 부럽잖은 작지만 강한 회사' 라는 제목으로 소개됐다. 88쪽과 89쪽 두 쪽에 걸쳐 소개된 기사는 우리회사가 연구개발과 다양한 복지제도 등에서 모범적이라고 언급돼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여 주었다.

탱크탑 개선사례

백덕현 기사

우리회사에서 대우에 납품 중인 T/T(탱크탑) 유닛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대우조선해양 사보에 실리는 등 화제를 낳고 있다.

설계를 도맡았던 백덕현 기사는 "이번에 이슈화 된 가장 큰 이유는 폴리앗 트레인으로 원탑재 한다는 개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며 원인을 꼽았다.

탱크탑 유닛은 가장 큰 유닛이라 야드(대우조선해양)에서도 한번에 들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우에서 원탑재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탱크탑유닛은 처음부터 설계작업을 많이 했고 원탑재 컨셉에 관해 야드와 설계, 선행의장 측의 많은 협의 끝에 이루어지게 됐다.

원탑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강과 리프팅 러그 포인트다. 백덕현 기사는 "탱크탑 유닛은 가장 큰 유닛이라 한번에 들 때 보강, 러그포인트 잡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솔직히 불안하기도 했지요. 부재량 유닛 거리에 대해 실제 정도차와 설계도 차

에 많은 신경을 썼고요. 사실 현장작업 생산담당이신 대경산업 성정모 반장님께서 많이 수고하셨어요. 원탑재 같은 경우 보강 자재가 가장 중요한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거든요. 이번 이슈화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라고 말했다. 이번에 탑재한 탱크탑은 지난해 12월 중순 2315호와 지난 2월 중순 2316호 등 두 척이다. 보통 탱크탑을 분리하는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고 모두 합해 며칠씩 잡아먹는 폴리앗 탑재에 걸렸던 시간은 단 1시간 남짓 엄청난 시간이 절약됐다.

"2척이 성공했지만 앞으로도 유사시리즈가 8척이 남았어요. 지금 도면 그리는 중인데 현장에서 지금처럼 도와주고 협력한다면 추후에도 특별한 문제점 없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번 탱크탑이 성공적으로 개선된 것에는 야드와 선행의장 그리고 설계의 피드백이 잘된 것도 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대우쪽 기장설계팀 박태진 과장님이 전



체관리를 했는데 일적인 부분에 있어 믿고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주셔서 서로 일하는 게 편했어요. 아까 언급했던 성정모 반장님과 박태진 과장님 그리고 설계팀 저까지 서로 간섭없이 피드백이 잘됐어요. 공간활용도 잘됐고 오작률도 적었고요. 이번에 서로 얻은게 많아요. 현장 생산시수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시간절감효과를 위해 원탑재개념을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설계를 맡은 백덕현 기사의 마음도 남다를 듯 하다. 백덕현 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 여간 유니택 설계상

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그러다시피 했어요. 그 때 김황준 차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셨지요. 또 선테크라는 회사에 다니는 제 친구(김남진)가 와서 주말마다 도와주기도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마지막까지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물건이 잘나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돼 저도 무척 기쁩니다."라며 주위에 감사를 전했다.

"결국 설계든 생산이든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주인의식' 을 가질 때 제조업체의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끝까지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업부 이주일 부장

선보 영업부에 새로운 피가 수혈됐다. 지난 2월 선보가족이 된 이주일 부장이 그 주인공. 선보에 첫 발을 디딘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어색하다는 이주일 부장은 우리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조선 업계에서 근무했었다. "선보에는 알던 분들도 많이 근무하고 계셔서 예전부터 알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물론 겁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업무가 힘들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하하. 그래도 그동안 영업 쪽에서 일했

던 제 경력을 살려 선보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기존 우리회사가 만든 제품들은 이미 신뢰를 받아 경쟁력을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장래를 내려다보면 새로운 아이템, 신규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주일 부장은 "기존제품에 대해선 잘되고 있으니 써포트(support)하는데 중점을 두고요.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 10~20년 후 선보를 먹여 살릴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며 포부를 내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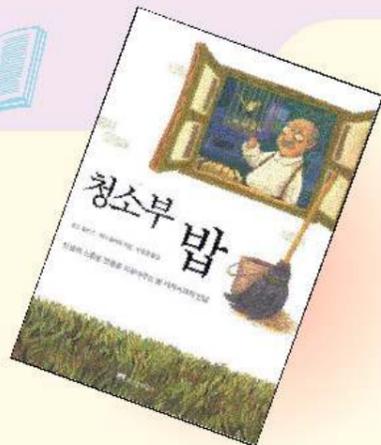
"어느 회사든 간에 만만한 회사가 있겠습니까. 그 회사 특색에 맞춰서 그 회사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요. 항상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 인정도 받고 보람도 느끼지 않을까요."

선보의 새 얼굴

"태어날 때 많이 웃어주는 사람보다 죽을 때 많이 울어주는 인간이 되자" 이주일 부장의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라고 한다. 이 말은 이주일 부장의 가치관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처음에 반짝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다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원 여러분들도 저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최홍렬상무의 이한권의책



여섯 가지 지침

- 지쳤을 때는 재충전하라
-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 배운 것을 전달하라
-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 삶의 지혜를 후대에 물려주라

로저 김브로우는 젊은 나이에 CEO가 되었지만 회사는 경영 위기에 처해 있고, 아내와는 이혼당할까 두려울 정도로 소원해진 상태이다.

은퇴한 사업가 밥 티드웰은 2년 전 사랑하는 아내 엘리스를 떠나보내고 소일 삼아 로저의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다.

어느 월요일 저녁 두 사람은 직원 휴게실에서 만나 차를 마시게 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모두에 지쳐 있는 로저의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린 밥은 그를 돕기로 한다.

밥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엘리스의 여섯 가지 지침' 을 로저에게 들려주기로 하고, 매주 월요일 직원 휴게실에서 만나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로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현재 자신의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밥의 경험담을 들으며 마음을 열게 된다.

밥이 들려주는 지침과 이야기들은 로저의 삶을 점차 변화시킨다. 로저는 가족의 소중함, 즐겁게 일하는 법 등 놓치고 있던 인생의 가치들을 되찾아가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모두를 조화롭게 이끌게 된다.

현명한 아내 엘리스의 지혜(여섯 가지 지침: 지쳤을 때는 재충전하라/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배운 것을 전달하라/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삶의 지혜를 후대에 물려주라), 청소부 밥이 행한 지혜의 전수, 로저의 실천과 변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일의 즐거움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할 것이다.



LPG 선박에 대한 기술

1. 액화 가스의 특성 (하)

LPG 의 위험성과 대책

인화성

A. 인화 범위
LPG VAPOUR은 공기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 있을 때 발화원이 있다면 쉽게 인화된다. 이 때 인화될 수 있는 공기중의 가스 농도의 상한을 인화상한계(UFL), 하한을 인화 하한계 (LFL)라 한다.

UFL과 LFL 사이를 인화성 범위라고 한다. 인화성 범위는 폭발성 범위와 같은 의미며, 이것을 각각 UEL, LEL이라고도 한다. LEL%는 공기중에 LP가스의 용적비 2%(2% VOL)를 100으로 표시한 것인데 만약 20LEL 이라고 하면, 인화 하한계의 0.4% VOLUME 의 농도를 의미한다.

LPG 선박의 화물탱크 주위의 VOID SPACE에 불활성 사스를 충전시켜 산소를 최소로 하여 만약 LP 가스가 누설되더라도 인화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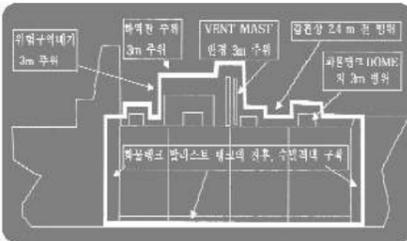
B. 발화원의 방지

- 노출된 불꽃 등의 관리.
- 용접작업과 같은 고열 작업의 관리
- 전기기구, 통신장치에 대한 규정의 준수

- 정전기 방지 대책.
- BONDING 의 확인.

C. GAS의 위험구역

IMO의 액화 가스선 선체구조 설비 규정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개념의 위험구역을 규정하여 이구역에 사용하는 공구 및 전기 설비는 방폭형으로 또한 통풍설비와 출입구의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제한이 있다.



저온성

A. CARGO SYSTEM을 급격히 냉각시키지 말 것. 충분한 시간에 걸쳐 정하여진 냉각 속도를 지켜 냉각 할 것.

B. CARGO SYSTEM 중에 수분이 혼입되었을 경우 GAS FREE (공기)에서 INERTING 할 경우 노점온도가 높은 INERT GAS를 사용할 경우 결빙이 생기

며 특히 안전변의 출구측, 화물 PUMP, 재액화 장치 출구의 팽창변, SPRAY NOZZLE 의 Y형 STRAINER 등에 결빙이 모인다. 이 때 METHANOL을 주입시켜 녹이나 화물 PUMP, MOTOR 의 절연저하에 주의 한다.

C. CARGO CONNECTION 부의 DRAIN PAN을 설치, 호스의 이탈시 액이 직접 DECK 에 튀지 않도록 한다. 위의 DRIP PAN 의 규격 및 설치장소는 IMO, USCG, ISGOTT 등의 규정에 따른다.

고압성

A. 화물탱크, PIPE, 재액화 장치등에 정해진 압력의 범위안에서 조작해야 한다.

B. 액라인 에 압력이 걸리거나, 걸려있을 경우에 꼭 한쪽 VALVE를 열어 두어야 한다.

C. VALVE을 급격히 열거나 닫지 말 것. PIPE 내에 높은 SURGE 압이 생길 수 있다.

D. 다른 종류의 화물이 혼합될 경우 급격한 증발을 일으키니, 본선의 라인 VALVE

의 오조작이 없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A. 동상

LPG 화물의 누설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부근에는 기화열에 의해 급냉되며 피부에 직접 LPG VAPOUR 가 접촉하면 동상에 걸리니 긴 소매의 작업복, 보호장갑,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B. LP 가스의 허용농도

허용농도란 그 분위기속에 작업을 해도 건강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최고 한도를 말한다. PROPANE은 1000 PPM, BUTANE은 600 PPM 이나 다량의 가스를 흡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C. 인화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불활성 가스 또는 질소는 대량흡입할 경우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특히 폐쇄구역에 들어갈 경우 산소농도 20% 이상 및 책임자의 허가하에 들어가야 한다.



'협력업체탐방'은 선보와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협력업체 중 한 곳을 선정해 해당업체에 대해 알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마련된 코너이다.



세분화된 공정으로 더욱 더 견고하게 유정산업

김성구 대표



이번 호에는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고 30명 가량의 직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유정산업 김성구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세분화된 공정으로 오작범위 줄여

유정산업은 유닛피스(UNIT PIECE)를 주 생산품으로 하는 생산업체다. 지난 2003년 11월 말 설립된 현재 선보에는 생산 3팀에 퓨리파이어 및 일반관 유니트, 소형 유니트용 파이프 피스를, 생산 2팀 및 선보유니텍(주)에 일반관 중 선급관 파이프 피스를 납품하고 있다.

선보와 2004년 3월부터 인연을 맺었다는 김성구 대표는 "선보와는 초기 광진 ENG의 사외 협력사로 출발해 거래해왔어요. 그러다 선보공업에 사외협력사를 직거래 체제로 변환하는 조건으로 선보공

업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선보에 대해서는 '항상 바빠져 변화가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변화가 많다는 것은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는 협력사에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주는 것으로 우리회사도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정산업만의 특징에 대해 김성구 대표는 '모든 공정이 세분화 되어 있다는 점'을 꼽았다. "3단계에 걸친 공정으로 인해 오작 범위를 줄이고 있어요. 공정단계가 자재준비-PIPE 선 작업(커팅, 개선, T, 지관작업)-밴딩-제작-후렌지 작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회사의 장점입니다. 또 직원들의 평균연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 비교적 젊은 편입니다. 저 역시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젊은 직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활력을 얻고 있고

요." 기존 광진 ENG의 협력사에서 선보공업과 직거래 체제로 변환되면서 여러 힘든 점도 있었다는 김성구 대표. "선보가 요구하는 관리적 부분에 있어 인력부족, 서류 등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또 공장이 협소해 파이프 피스 검사 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물류비 부담도 있었어요. 이 같은 문제점으로 초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현재까지 왔습니다. 처음 선보와 직거래 시 퓨리파이어 룰이 월 5-6척이었으나 지금은 10척 가까이 됐고 생산 3팀의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선보가족'은 품질향상과 납기준수에 최선 다할 것

올해 유정산업의 목표는 생산성 30%향상, 합격률 100% 준수, 납기 100% 준수

다. 거시적으로는 현재 생산 3팀 배관 파이프 피스를 제작하고 있으나 향후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생산 3팀 퓨리클 파이프 피스 100% 제작, 생산 2/3팀, 선보유니텍 선급관 100% 제작, 생산 2/3팀 일반관 유니트(소형) 파이프 피스 100% 제작 등이 가능하도록 생산라인 및 검사, 납품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인력확충, 공장 증설 또는 이전이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회사의 배관공장으로서 타 협력사와 달리 우리회사 제품만 100% 생산하고 있는 유정산업. 김성구 대표는 "우리회사의 발전이 선보공업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납기,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향후 선보공업의 모든 파이프 피스에 대해 제작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우리회사가 올 한 해를 제2의 도약기로 삼아 품질 납기에 최선을 다해 선보공업 발전에 밀거름이 되고싶다" 많은 관심을 전했다.





12호 칭찬 릴레이~

용접반 김수환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는 용접반 훈남”

선보가족의 12호 칭찬주자로 추천합니다.



뒷공정을 생각해서 책임지고 끝까지 일하느라 퇴근시간을 미루기도 하는 등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끝까지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칭찬 릴레이 12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을 말해 주세요.

기본 좋네요. 회사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고맙기도 하고요. 처음 선보에 들어와서 김진삼 반장님을 보았을 때 좀 엄하신 편이라 처음엔 어려웠는데 같은 후공정 일이다보니 나중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친해졌어요. 김진삼 반장님도 책임감 강하고 칭찬받을 분인데 저를 칭찬해주셔서 놀랐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할게요.

13호 칭찬 주인공을 주전에 주세요.

많이 생각해봤는데 추천하는게 참 어렵더라고요. 다들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고... 굳이 한 분 추천한다면 광진엔지니어

손성훈씨를 추천합니다. 이 분은 사실 저희학교 선배예요. 잘해주지만 저한테는 조금 무뎠던 편이기도 해요. 저는 이 분 일하는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요. 후공정을 생각해서 깔끔하게 진행하거든요. 앞에서 편하려고 막하면 뒷 공정에서 힘들어지는데 이 분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시는 건 물론이고 뒷사람을 배려해 일을 진행해요. 다른 공정까지 배려하는 사람 좋은 손성훈 씨를 13호 주인공으로 추천합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근무하시는지요?

선보에 들어온지는 3년 쯤 되네요. 특례병으로 일한 건 작년 11월부터 였어요. 저는 잔업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제 일을 시간 안에 끝내는 편이에요. 마무리를 하지 않고 퇴근하면 찻집하고 다음날 일거리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나 다른 사람들이 모두 편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마무리 하려고 노력해요. 특례병에게 임금을 작게 주거나 대우에 차이를 주는 회사가 많은데 선보는 제가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 (5개)

축하합니다!

선보공업(주)

생일

- 관리부
- 임용기 (3/19)
- 서재욱 (3/20)
- 안정빈 (4/2)
- 구매부
- 현병태 (3/25)
- 생산1팀
- 김상지 (3/17)
- 배기동 (3/23)
- 김승우 (3/24)
- 조봉실 (4/15)
- 생산2팀
- 허현정 (3/16)
- 백천우 (3/17)
- 허정민 (3/25)
- 권성용 (4/13)
- 생산2팀(신덕)
- 김휘동 (4/12)
- 생산3팀
- 곽수훈 (3/17)
- 오정용 (3/24)
- 배승용 (3/30)
- 김진삼 (4/10)

- 이광일 (4/11)
- 김오석 (4/12)
- 최근돌 (4/15)
- 생산3팀(광진)
- 정순교 (4/4)
- 손성훈 (4/14)
- 생산3팀(순해)
- 강태현 (3/25)
- 설계부
- 윤우희 (3/24)
- 영업부
- 강현욱 (3/25)
- 자재운영
- 조현상 (4/4)

- 입사기념일
- 관리부
- 김수안 (3/19)
- 정정원 (4/5)
- 생산1팀
- 엄익상 (3/18)
- 생산2팀
- 라웅 (3/17)
- 김기주 (4/1)
- 생산3팀
- 추연탄 (3/17)

- 임종화 (3/26)
- 생산계획
- 김정욱 (3/20)
- 설계부
- 최우호 (4/1)
- 자재운영
- 이은석 (3/26)
- 조경선 (4/1)
- 품질보증
- 이현우 (4/1)
- 백승모 (4/1)

선보유니텍(주)

- 생일
- 임용기 (3/19)
- 김호석 (4/6)
- 강현욱 (3/25)
- 김갑진 (4/15)
- 입사기념일
- 강보영 (3/23)
- 김동희 (3/28)
- 권오경 (4/2)
- 하경원 (4/10)

- 힌 (3/17)
- 두안 (3/17)
- 텐 (3/17)
- 반정 (3/17)
- 남 (3/17)

대경산업

- 생일
- 이상진 (3/21)
- 오우정 (3/24)
- 심주섭 (4/11)
- 안동호 (3/18)

명성산업

- 생일
- 권대석 (4/3)
- 정용주 (3/31)
- 박한수 (4/1)

이달의 책 추천

홈페이지 사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분을 매달 말일 추천하여 이달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달에는 유니텍 설계부 오창배사원이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이달의 책은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읽고 싶은 분들은 자유 대출 하세요.

롯데시네마 영화소개

텍사스 전기톱 연쇄 살인 사건 제로
 감독 : 조나단 리브스만
 출연 : 조나나 보루스터, 테일러 핸들리, 데이오라 베어드
 장르 : 호러, 스릴러
 상영시간 : 90분

행복을 찾아서
 감독 : 가브리엘 무치노
 출연 : 댄 카스텔라네타, 케빈 웨스트, 레베카 팔링겐
 장르 : 드라마
 상영시간 : 117분

1번가의 기적
 감독 : 윤계균
 출연 : 임정경, 하지원, 주현
 장르 : 드라마
 상영시간 : 113분

복면달호
 감독 : 김상찬, 김현수
 출연 : 차태현, 임재우, 이소연
 장르 : 코미디
 상영시간 : 미정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감독 : 마크 로렌스
 출연 : 휴 그랜트, 드류 배리모어, 브래드 피트
 장르 : 로맨틱 코미디
 상영시간 : 103분

드림걸즈
 감독 : 빌 콘돈
 출연 : 제이미 폭스, 비욘세, 에디 머피
 장르 : 드라마, 음악, 뮤지컬
 상영시간 : 129분

일루서니스트
 감독 : 빌 버거
 출연 : 매튜 볼러드-스미스, 브라이언 카스피, 톰 피셔
 장르 : 판타지, 미스터리, 로맨스
 상영시간 : 108분

한니발 라이징
 감독 : 조 카나한
 출연 : 벤 에플렉, 앤디 가르시아, 알리샤 키스
 장르 : 스릴러
 상영시간 : 108분

스모킹에이스
 감독 : 조 카나한
 출연 : 벤 에플렉, 앤디 가르시아, 알리샤 키스
 장르 : 스릴러
 상영시간 : 108분